참여연대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공동대표 : 김중배 김창국 박상증 110-734 서울시 종로구 인국동 175 - 87 인국빌딩 5층 전화 : 723-5300 / 팩스 : 723-5055
천리안 하이텔 PSPD, 나우누리 유-텔 : 참여연대 / 전자우편 : pspd@soback.kornet.nm.kr / 인터넷 홈페이지 : http://www.koreanet.org/~pspd/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및 법조출입기자
발 신 참여연대 (담당 : 시민감시국장 김형완 723-5302)
제 목 검사장 인사에 관한 논평
날 짜 1998. 3. 20. (총 1 쪽)

성 명 서

검사장 인사, 개혁의지가 안보인다

1998. 3. 20. (금)

1. 어제(3월 20일자) 검사장 인사가 이루어졌다. 과연 '국민의 정부'에 걸맞는 새로운 인사가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 온 국민들이 큰 기대를 걸었었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그게 아니었다. 구태의연한 인물들이 그대로 요직을 차지하였고 이런 인사들로 검찰의 개혁과 사법정의를 이루어 내리라는 기대를 하기 어렵게 되었다.

2. 이번 인사에서 공안인맥이 철저히 배재되었다고 말하고 있으나 실제는 그렇지 않다. **검사장으로 승진한 신광옥(법무부 기획관리실장), 김원치(대전고검 차장검사)씨와, 핵심 요직 중의 하나로 지목되는 법무부 교정국장으로 보임된 김경한 검사장등은 지난 5공화국 당시 서울지검 공안부 등에서 인권침해사건을 담당하면서 군사독재정부의 하수인노릇을 해 온 사람들이다. 특히 부산지검장이 된 김수장씨는 권인숙씨의 부천서 성고문사건을 무혐의처리한 인천지검부장검사 출신이며, 최병국 전주지검장은 김현철사건을 은폐하려했던 장본인이다.** 이들은 오히려 새로운 정부에서는 퇴임해야 마땅한 인물들이다.

3. 우리는 여러 차례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검찰은 그동안 실체적 진실과 사법정의에 충실하기 보다는 정치권의 영향과 압력에 더 눈치를 봐 왔다. 그럼으로써 검찰은 권력의 시녀가 되고 국민의 불신을 받는 집단이 되었다. 엄정하고 독립된 검찰이야말로 부패하고 타락한 사회를 바로잡는 기둥이다. 그런 검찰을 만들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가진 호랑이같은 검사들을 제대로 제자리에 배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인사는 과거 정권과 별 차이를 느낄 수 없을 정도로 구태의연한 인사라고 할 수밖에 없다. 우리 검찰과 나라의 장래가 걱정된다.

참여연대 공동대표 김중배·김창국·박상증